

지역적 침체현상 극복하는 호남의 '고집'

성실한 고객관리에 주력하는 전주 '홍지서림'

전주의 풍광은 대체로 나즈막하다. 어두울대로 어두워진 시각에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짐을 풀 여관방 창문에서 바라다 본 것은 전북대 부근 대학가였다. 날이 새고 좀더 행동반경을 넓히면 전주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도 같았지만, 우선 이런저런 건물 꼭대기를 잇는 스카이라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주의 외모는 '자극'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택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장동과 은행·관공서 등으로 이루어진 조촐한 ' 시내' 를 조금 지나, 뒷골목이라 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장소에 위치한 홍지서림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형서점의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의 그 전주가 강요하는 '목계'에 따르고 있는 듯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홍지서림의 실평수는 250여평에 이른다. 이중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매장은 1·2층 각각 60평으로, 1층에는 일반교양서적과 참고서·잡지코너가 자리잡고 있고 2층은 예술서적·대학교재를 비롯한 전문도서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이밖에 창고와 사무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매장 면적과 맞먹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지방대형서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까지 걸린 세월은 27년, 그리고 3번의 '이사'를 거쳐야 했다.

첫 사회생활을 서점 영업부직원으로서 출발한 천병노사장은 "책에 묻혀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부러웠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63년, 5~6평 남짓한 참고서대리점으로 독립한 천사장은 자신의 노력도 노력이었거니와 당시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정신 못차릴 정도"의 성장률로 인해 이 일이 자신의 천직임을 예감했다고. 7년만에 그 옆의 땅을 매입,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을 짓고 본격적인 서점경영을 시작한 그는 점차 취급도서의 종류에도 신경을 쓰면서 그야말로 "좋은 시절"을 맞게 된다.

"부친의 이름에서 따온 '弘'자와 당시 세계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一志社의 '志'를 합쳐 지은 서점이름 덕인지, 여러 은행과 거래할 정도로 실적이 좋았던 '전성기'였죠."

지금의 경원동으로 옮긴 것이 지난 80년. 이전까지 사용하던 건물은 도앵부로 동생에게 경영을 맡기고 자신은 본격적인 일반서적매장으로 개장을 했다고 한다. 개장 초기만해도 단행본 매상이 꾸준했고 특히 국내작가의 수상집이 인기가 있었다고 말하는 그는, 문제는 요즘의 심각한 '침체현상'이라고 한다.

"처음 서점경영을 시작했던 60년대만 해도 전주는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결코 낙후된 지역은 아니었지요. 그러던 것이 70년대 '경제변혁기'를 거쳐 80년대에 이르면서 점차 정체되기 시작,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더군요. 서점도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다할 상권이 형성되지 못한 전주에서의 서점경영은 무척 힘에 부칩니다."

인구 50만도 인근지역의 행정구역에 합쳐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대형서점의 존재가 갖는 의미 자체에 가끔 회의도 든다는 그는, 얼마전부터 부쩍 주위 사람들로 부터 "대형서점으로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고 한다.



홍지서림의 매장. 1, 2층을 합해 120평이다.

더구나 근래 지방서점들에게 큰 '위기의식'을 안겨주었던 교보문고 지방분점문제도 그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저도 대형서점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정한 수용환경이 갖추어진 다음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나마 확보해놓았던 서점인구를 분산시켜, 비록 속도가 느리나마 전주의 다른 상권과 맞물려 돌아가던 톱니바퀴에 낫선 이물질이 섞이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지요."

무슨 일이든지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그래서 사태해결을 위한 일시적 '충격요법'은 신뢰하지 않는다. 장기저리자금 지원 같은 정부의 실질적인 서점보호육성책이나 출판사측의 마진률배려 등과 같은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그가 관심을 갖고 다른 서점경영인들과 의논하는 해결책들이다.

한편 그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고객관리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는데, 품질된 책은 즉시 주문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책이 도착하는 즉시 고객의 집으로 전화연락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간안내를 겸한 서점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 방송국과 일반 사무실에까지 배포하고 있다.

사실 홍지서림은 광주나 대전보다 훨씬 먼저 매장확보에 신경을 써왔다. 지금도 서점 뒷편에 50여평의 부지를 마련해놓고 있는데, "솔직히 위험부담이 클 것 같아 망설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땅은 곧 이 서점을 찾는 고객의 것이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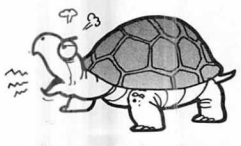
"앞으로도 계속 대형서점경영인으로서 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직도 많은 계획이 제 머리 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평생의 업으로 삼은 이상 외도는 없을 겁니다."

— 정소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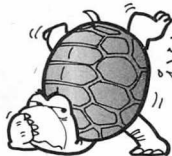
2편, 잔피동물의 세계가 나왔습니다.

Q: 남생이는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할까?

① 입을 크게 벌리고 덤벼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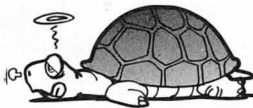
②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③ 방귀를 똥다.



④ 죽은체 한다.



A: 직접 확인하세요.

① 포유동물의 세계 ② 잔피동물의 세계

퀴즈 탐험

KBS-제1TV
절찬리 방송중!

신비의세계

글·그림 김충원

“퀴즈+만화로 배우는
신비한 동물의 세계!!!”

·각권 값 3,000원

전화 720-5990-1

진선출판사

팩시밀리 739-2129